

# 닭고기 소비를 늘립시다

우리 양계농가들에게 뼈를 깎는 고통을 주면서 두 달 가까이 전국을 들썩이게 한 AI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정부에서는 시중에 유통되는 닭고기는 안전하며 끓여 먹기만 하면 아무 문제없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사람에게 전염된 사례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홍보해 닭고기 소비를 늘리는 방안을 찾아주기 바란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닭고기 수매량을 더 늘려주고, 도시의 치킨집, 삼계탕집, 닭볶음탕집 등 모든 음식점들이 닭을 더욱 많이 팔도록 독려 해주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안심하는 가운데 정부에서 닭고기를 적극 홍보한다면 그동안 판매되지 못했던 부진을 벗어나 우리나라의 닭고기 판매는 예전의 상태로 돌아갈 것을 확신한다.

정부에서는 닭고기 수매량을 더 늘려주고, 도시의 치킨집, 삼계탕집, 닭볶음탕집 등 모든 음식점들이 닭을 더욱 많이 팔도록 독려 해주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안심하는 가운데 정부에서 닭고기를 적극 홍보한다면 그동안 판매되지 못했던 부진을 벗어나 우리나라의 닭고기 판매는 예전의 상태로 돌아갈 것을 확신한다.



아울러 이번 투고에 두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다. 그동안 AI가 문제를 일으켰던 두 달간 농가에서는 닭값이 완전히 헐값이었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AI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지역 농가들은 살 처분에 이어 닭값이 최저가에 팔리고 있을 때 도시의 친척들 말로는 치킨값이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

요즘 치킨값은 후라이드 기준으로 14,000원 정도 한다. 그런데 그 가격이 AI로 문제가 됐을 때나, AI가 완전히 사라진 지금이나 계속해서 14,000원 그대로라니 소비자로서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니 농가들은 닭을 사육하면서 서운한 마음을 지울 수 없지 않을까?

AI로 산지 농민들은 자식 같은 생닭들을 땅속에 묻으면서 가슴이 찢어졌고, AI에 감염되지 않은 지역의 농가들도 제값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줄지에 AI라는 이유로 멸절된 닭을 혈값에 팔아야만 했다.

이럴 때 치킨값이라도 닭고기 가격에 맞춰 조금이라도 내려줬더라면 닭고기 소비가 그나마 좀 늘어나 서로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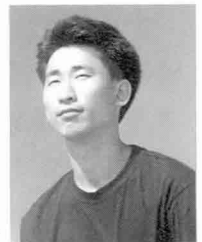
두 번째 문제는 AI 발생 전후로 언론의 보도가 너무나 무분별했다. 마치 AI가 온 나라에 창궐해 전염병이 돌고, 그것이 우리나라 전체를 집어 삼킬 것 마냥 보도했다. 물론 일부 언론에서는 닭고기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시식회 사진과 국무총리가 닭고기 음식을 먹는 장면을 내보내줘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언론의 보도는 자칫 AI가 인체에 감염될 수 있다는 식의



보도를 하고, 심지어 대학 연구소 연구결과라는 것까지 내놓으면서 법석을 떨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AI로 인체에 감염된 사람이 어디 한명이라도 있었나?

이런 추측성 기사들을 앞다퉈 보도해 닭고기 소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없도록 한국계육협회를 비롯 관련단체, 그리고 정부에서 적극 홍보해주고, 치킨이나 닭고기 외식 사업을 하는 분들이 닭고기 할인행사 등을 통해 닭고기 소비가 늘어나게 해주기 바란다. 🐔



김 선 강 | 강원도 홍천군